

한우 자조활동자금 설치 세부추진계획

1. 목적

-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자조활동을 통하여 한우고기 소비촉진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
- 한우농가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설치근거 :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2002.5.13. 법률 제6698호)

2. 기본방향

- 한우관련 생산자단체인 전국한우협회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자조활동자금(이하 '자조금'이라 함) 설치
- 자조금 설치를 위한 준비위원회 설치 등 세부절차에 대하여는 전국한우협회와 농협중앙회가 협의하여 추진

3. 자조금 설치과정

한우사육두수 조사
시장·군수→시·도→농림부

농림부에서 대의원 선출을 위하여 시·도 및 시·군을 통하여 한우사육 농가수와 사육두수 조사



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 설치
전국한우협회·농협중앙회

법률상 축산단체가 2개이상 있을 경우 공동으로 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



대의원 선출
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

대의원은 선출구별(시·군) 한우농가 과반수 또는 한우두수 3분의 2이상 사육농가가 투표로 선출 (대의원은 총 250명으로 시·군별로 배정)



거출금 납부에 관한 투표
대의원회

대의원의 3분의 2이상 투표하고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



자조금관리위원회 설치
전국한우협회·농협중앙회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자조금 관리사무국 설치·운영



사업계획 수립·제출
자조금관리위원회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농림부에 제출



사업계획 승인
농림부

농림부에서 사업계획을 검토 승인하고 정부출연금 (조성액의 100% 이내) 지원



거출금(한우자조금) 조성
수납기관(도축장)→관리위원

대의원회에서 결정한 거출금을 수납기관(도축장)에서 징수



자조금사업 집행
자조금관리위원회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을 사무국에서 집행

4. 과정별 세부추진계획

가.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설치

□ 위원회 구성

○ 인원 : 11명(위원장은 1차 회의에서 결정)

구 분	법률상 정 원	선 정 위 원	
		위 원 명 단	계
축산업자	8人以下	한우협회 : 2명 농협중앙회 : 2명	4
단체임원	4人以下	한우협회 : 2명 농협중앙회 : 2명	4
학 계	1인	전국한우협회·농협중앙회 공동 추천	1
소비자단체	1인	전국한우협회·농협중앙회 공동 추천	1
유통전문가	1인	전국한우협회·농협중앙회 공동 추천	1
계	15人以下		11

□ 기능

- 대의원 선출에 관한 업무(선출구 및 선출구별 대의원수 확정,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 등록 및 선거관리 등)
- 기타 자조금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운영

- 회의 개최시기 및 장소는 전국한우협회와 농협중앙회가 협의하여 결정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비용분담

- 공동준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전국한우협회와 농협중앙회에서 각각 50%씩 공동 부담

나. 대의원 선출

□ 선출 대의원수 : 250명

- 선출구별 대의원수는 농림부의 한우사육두수 조사결과에 의거 농가호수(50%) 및 사육두수(50%)를 기준으로 결정

- 지역(도)별 대의원 선출 예상 명수 (2002년말 통계 기준)

서울 경기 : 15명	인천 : 1명	대구 : 2명
부산 경남 : 40명	대전 : 1명	울산 : 3명
광주 : 1명	강원 : 19명	충북 : 17명
충남 : 33명	전북 : 22명	전남 : 41명
경북 : 53명	제주 : 2명	총 250명

□ 대의원후보자 자격

- 선거공고일 현재 선출구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을 둔 한우사육농가
 - 한우사육농가는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소재지중 한 곳을 택하여 대의원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복수등록은 할 수 없음

□ 대의원 선거

- 선거일 : 농림부의 가축사육두수 조사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
 - 선거일 30일전까지 선거권자를 확정하고 투표일시 및 장소, 선출구별 대의원수, 대의원후보자 등록장소, 등록신청 양식, 우편투표의 수신처 등 확정공고
- 대의원후보자 등록 및 투표장소 : 선출구 관할 지역축협
 - 대의원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한우농가는 투표일 15일 전까지 선출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선출구별로 지역 축협 및 전국한우협회지부에서 각각 2인씩 추천하여 구성
- 투표방법 : 직접투표
 - 투표는 단기명 또는 연기명에 의한 비밀투표에 의하며, 투표자 1인1표로 함
- 당선자 결정 : 선출구별로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연장자 순으로 결정
- 기타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준비위원회에서 결정

□ 대의원회

- 구성 :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
- 기능
 - 거출금 납부의무 부여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
 - 거출금의 한도액 결정
 - 자조금사업 당해연도 결산 및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다. 거출금 납부에 대한 투표

□ 대의원회에서 거출금 납부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

- 투표일시 : 대의원 선출 후 1개월 이내
- 투표방법 : 1인1표로 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함
 - 의결정족수 : 대의원의 3분의2 이상이 투표, 투표자 3분의2 이상이 찬성

※ 거출금 납부에 대한 투표는 대의원회가 변경될 때 실시

- ① 매 4년마다 정기적인 대의원 선출시
- ② 대의원 변경 요구로 대의원 재선출시

라. 자조금관리위원회 설치

□ 위원회 구성

- 인원 : 14인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감사 2인 포함)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
 - 감사는 대의원중에서 대의원회가 위촉(임기 2년, 연임 가능)
- 위원
 - 전국한우협회 회장,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 대의원중 대의원회가 위촉하는 자(전체위원의 과반수이상) 7인
 - 농림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1인
 -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비자단체에서 위촉하는 자 1인
 - 전국한우협회장이 위촉하는 자 1인
 -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자 1인
 - 수납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위촉하는 자 1인

□ 기능

- 자조금 조성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자조금 조달·운용에 관한 계획 수립
- 자조활동자금 운영에 관한 감사
-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개정
- 예산의 편성 및 변경과 결산
- 기타 위원장이 제안한 사항

□ 운영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함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 지급

□ 자조금관리사무국 설치·운영

-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자조금관리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함) 설치
 - 전국한우협회·농협중앙회는 사무국 설치·운영에 상호 협조
- 사무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함

마. 거출금 납부 및 지급

□ 거출금 수납업무 위탁

- 수납업무 위탁 : 거출금 납부에 대한 수납업무는 수납기관에 위탁
 - 수납기관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
- 위탁수수료 지급 : 거출금 수납업무 위탁기관에 위탁수수료 지급
 - 수수료율은 거출금의 3% 이내에서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거출금의 한도

- 거출금의 한도는 한우 평균거래가격의 0.5% 이내에서 대의원회에서 결정
 - 거출금 금액은 정액 또는 정율로 정함
- 한우의 평균거래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거출금액을 다시 결정

□ 거출금 납부 및 지급 절차

- 한우농가가 도축장에 도축을 의뢰할 때 수납기관에 거출금을 납부
 - 도축장에서 출하자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정산
 - 수납기관은 거출금을 수납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
- 수납기관은 수납한 거출금을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축산단체에 지급

5. 자조금 조달 및 운용계획

가. 조달

□ 조달규모 : 총 40억원

- 한우농가 거출금 : 20억원(5,000원×400천두)
 - 도축장 출하 1두당 거출금(계획) : 5,000원(시세의 0.1%)
 - 연간 출하예상두수 : 400천두
 - 정부 출연금 : 20억원('04년부터)
 - 한우농가 거출금의 100% 해당 금액을 정부에서 출연
- ※ 자조금 규모는 대의원에서 의결한 거출금 한도에 따라 최종 결정됨.

나. 운용

□ 기본방향

- 한우고기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통한 한우농가의 소득향상 및 한우산업 발전도모
- 한우고기 요리강습 및 시식회 개최, 요리개발을 통한 소비촉진
- 한우개량, 질병방역, 분뇨처리, 안전축산물 생산, 유통개선 등에 대한 교육 및 조사연구사업 추진

□ 운용방법

-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에 따라 자조금관리사무국에서 운용
 - 자조금 조달 및 운용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관리
 - 매년 자조금 조달 및 운용관련 결산보고서, 사업계획서 공시
- 자조금 조성액의 5% 이내의 금액을 자조금관리사무국 운영 등 자조금 운용에 필요한 관리비로 집행

□ 주요사업

-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 한우고기 판매확대를 위한 국내외 시장개척
- 한우 품질고급화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교육 및 연구 개발
- 한우 및 한우고기 유통정보 제공
- 기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6. 추진일정(안)

구 분	추진일정(2003년도)						담 당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자조금설치세부계획 수립	—						한우협회, 농협
○ 한우사육두수 조사	—	—					농림부
○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 설치			—				한우협회, 농협
○ 대의원 선거공고				—			준비위원회
○ 대의원 선거실시					—		준비위원회
○ 대의원회 개최 (거출금 납부에 대한 투표실시)						—	준비위원회
○ 자조금관리위원회 설치						—	준비위원회
○ 자조금관리사무국 설치						—	준비위원회
○ 자조금사업계획 수립						—	관리사무국
○ 대의원회 개최 (사업계획 승인)						—	관리사무국
○ 자조금사업계획 제출						—	관리사무국

한우 자조금제 이렇게 운영합니다

전국한우협회 |

오늘의 한우산업은 그 주체인 한우농가 스스로의 역할 수행에 사활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한우산업이 정부의 지원에 의한 의타적인 산업형태를 보였다면 쇠고기시장 완전 수입개방 이후 오늘의 한우산업은 한우농가가 앞장서 유지·발전시켜 나갈 능동적인 산업으로의 변모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춘 한우농가 스스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생산자 중심의 한우산업을 생산자·소비자 공존의 한우산업, 소비자중심의 한우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나 자신의 일시적 이익 추구보다는 한우농가 모두의 장기적 공동 이익이 우선되는 한우산업을 구축코자 하는 의식전환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한우자조금은 한우농가의 이같은 변화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우자조금은 한우농가가 소비자에게 한걸음 더 나아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소비와 유통 분야에 직접 다가서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한우농가는 한우자조금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수입쇠고기와 차별화된 고품질의 한우고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한우농가의 노력을 소비자들로부터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한우자조금은 한우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한우고기 소비와 유통 분야에서 공존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한우농가들은 광우병, 채식주의 열풍 등 매년 반복되어 온 소비자들의 일시적이고 무조건적인 한우고기 기피현상을 겪어 왔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소비자들의 한우고기 신뢰가 되살아나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한우고기 소비촉진 홍보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축산물 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로 의무화 된 한우자조금을 통해 한우농가 스스로의 힘으로 한우산업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한우농가의 쇠고기 유통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소비자에게 적극 다가서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동시에 수입쇠고기와 수입생우의 한우둔갑판매 등 불법유통행위 근절에 선도적으로 나서으로써 소비자들의 한우고기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I. 한우자조금이란

한우자조금은 한우고기의 소비를 촉진하고, 그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한우농가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한우자조금 조성은 한우생산농가 스스로가 한우산업유지·발전에 주인의 자격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향후 한우산업육성을 책임지겠다는 의사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한우자조금은 한우농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을 내 놓음으로써 완성됩니다. 따라서 한우농가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 없이는 한우자조금이 조성될 수 없습니다.

II. 한우자조금의 필요성

한우고기 가격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현 상황에서 한우고기의 안전성과 수입쇠고기에 대한 품질차별화에 대한 소비자 홍보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우생산기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한우 고기의 우수성 및 안전성을 한우생산농가가 주도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를 차별화해 가는 활동이 중요했습니다.

한우자조금 조성은 한우농가 스스로가 한우고기 홍보에 능동적으로 참여, 향후 한우산업 육성을 책임지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이는 한우고기 유통구조가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농협유통, 이마트 등 대형양판점이 축산물 유통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으며 품질성과 안전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소비의식도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호주 등 수입쇠고기 수출국들은 입법화된 자조금을 바탕으로 막대한 자금을 들여 국내에서 다양한 수입쇠고기 홍보 판촉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마트 위주의 홍보가 아니라 골목골목까지 침투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물량위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한우산업도 이같은 축산물 유통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펼쳐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생산자 중심의 한우산업 체계에서 벗어나 소비자 중심의 한우산업을 목표로 브랜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한우농가들은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한우사랑에만 매달려 제대로 된 판촉 활동 한번

하지 못하고 있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우의 경우 급격한 사육두수 감소로 인해 높은 값을 형성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우 브랜드화의 정착과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이 본 궤도에 오를 경우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지속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한우농가들의 이같은 자발적인 품질고급화 노력이 지연되고 소비자에 대한 한우고기 홍보 및 판촉 활동 없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소비자들의 한우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으며, 민족산업인 한우산업 자체가 급격히 무너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우자조금은 따라서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증대시켜 한우산업 기반을 공고히 하는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 것입니다.

III. 한우자조금에 대한 전국한우협회의 입장

전국한우협회는 올해 1/4분기 내로 한우자조금 조성 여건을 마련하고, 빠르면 6월부터 한우자조금을 조성해 한우고기 우수성 및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홍보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우농가의 미래 불안감을 해소시켜 한우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소비자들의 한우고기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 활동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2001년 쇠고기시장 완전개방 이후 한우농가들은 불투명한 전망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쇠고기 시장에서의 한우고기 자급률은 20%대로 머물고, 한우산업은 한우고기 선호 소비자들까지 한우고기 소비를 국내산 육우고기와 수입냉장쇠고기 소비로 바뀌어나가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국한우협회는 한우자조금을 활용,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으로써 한우고기 소비·생산 기반을 공고히 할 것입니다.

이같은 한우산업 위기상황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한우자조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우고기와 수입 쇠고기 및 국내산 육우고기 (젓소 및 육우, 수입 생우)의 식별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 한우고기의 품질 차별성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우고기의 수입쇠고기에 대한 품질 차별화와 한우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결

맞는 한우고기 고품질화를 위한 한우농가의 노력도 가일층 강화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한우자조금은 따라서 한우 고기의 품질 차별성 및 안전성을 한우생산농가가 주도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를 차별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우산업은 이제 수입 냉장쇠고기와 전면전을 펼쳐야 합니다.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한우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우자조금은 한우농가 스스로가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증대시킴으로써 국제화 시대 수입쇠고기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한우자조금을 통해 전국한우협회는 수입쇠고기와의 경쟁에서 한우고기의 절대적 우위성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고유 유전자원인 한우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한우고기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우자조금은 그 목적상 한우농가의 권익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전국한우협회가 반드시 집행주체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전국한우협회는 한우자조금을 통한 소비자 홍보를 한우고기의 품질 우수성·안전성에 걸맞도록 수입쇠고기, 국내산 육우고기와의 가격면에서 차별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뒀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이를 위해 한우농가의 광역 브랜드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한우고기를 믿고 구입할 수 있는 한우고기 지정판매점 운영 등 유통체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한우자조금은 그 목적상 전국한우협회가 반드시 집행주체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한우협회를 중심으로 한 한우농가의 단결이 우선 과제입니다. 또한 한우농가 스스로가 한우자조금 조성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하고, 한우자조금 시행을 위한 대의원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한우협회는 한우자조금 집행을 통해 한우농가의 한우산업에 대한 미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최고의 한우고기를 비싼 값에 소비토록 하는 한우농가·소비자 공존의 시대를 열어 나갈 것입니다.

'02년도 한육우 도축검사 실적 요약

□ 한육우 도축실적

○ 소 : 633,024두(한우 448,594, 유우 173,732, 육우 8,801, 교잡우 1,897)

- 전년도 대비 13%(729,245두) 감소

※ '99~'00년 암소도축 증가로 송아지 생산 감소에 따른 도축량 감소

□ 한육우 절박도살 두수(507두)

○ 한우 137두(광주3, 경기16, 강원7, 충북1, 충남45, 전북1, 전남7, 경남57)

○ 유우 369두(경기120, 강원9, 충남141, 전남7, 경남92), 육우 1두(충남1)

※ '01년 절박도살두수(754두) : 한우270, 유우482, 교잡우2

- 전년도 대비 33%감소 : 절박직전 미리 도축장 출하 등 긴급 도축으로 절박도살 두수 감소한 것으로 예상

□ 한육우별 도축두수

(단 위 : 두, 천수)

구분 \ 축종	계	한우	유우(젖소)	육우	교잡우
'02. 1/4분기	158,750	116,412	39,800	2,051	487
'02. 2/4분기	148,644	101,466	45,114	1,692	372
'02. 3/4분기	172,490	126,867	42,471	2,573	579
'02. 4/4분기	153,140	103,849	46,347	2,485	459
누계	633,024	448,594	173,732	8,801	1,8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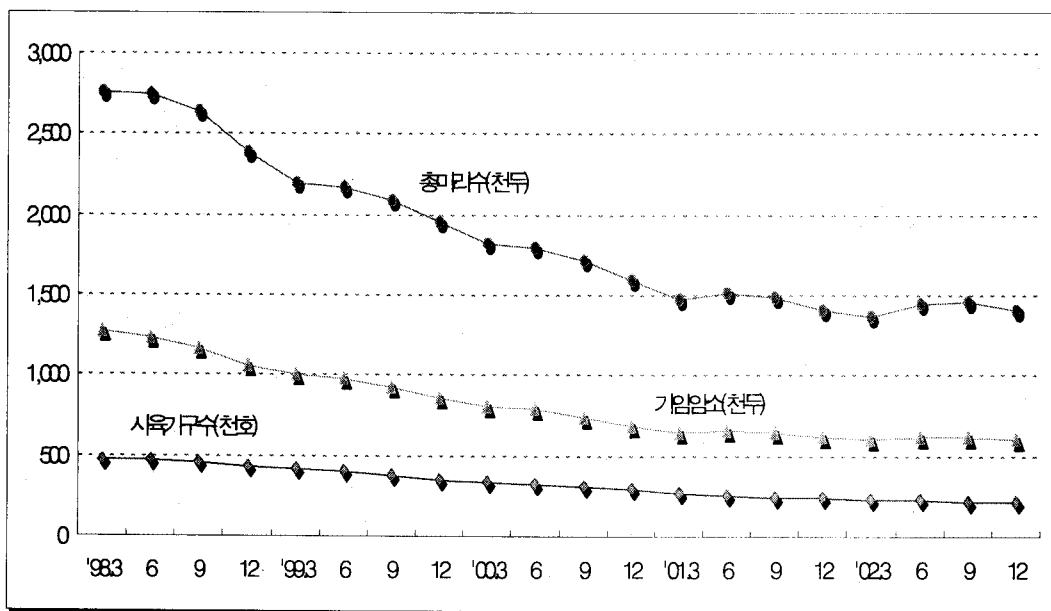
□ 한육우별 도살 평균체중

(단위 : kg)

구분 \ 축종	한우	유우	육우	교잡우
'02. 1/4분기	552	601	636	599
'02. 2/4분기	569	606	661	603
'02. 3/4분기	563	621	684	603
'02. 4/4분기	563	624	679	590

- 총마리수는 1,410천두로 전분기보다 51천두(△3.5%) 감소하였으나, 전년동기보다는 4천두(0.3%) 증가
 - 가임암소는 605천두로 전분기보다 13천두(△2.1%) 감소하고, 전년 동기보다는 8천두(△1.3%) 감소
 - 100두 이상 대규모에서는 사육두수가 증가하였으나 100두 미만의 중·소규모에서는 감소
- 사육가구수는 212천호로 전분기보다 6천호(△2.8%) 감소하였고, 전년동기보다는 23천호(△9.8%) 감소
 - 100두 이상 대규모 농가수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100두 미만 중·소규모 농가는 전분기 대비 2.8% 감소
 - 100두 이상 : ('02.6) 1.1천호 → ('02.9) 1.2 → ('02.12) 1.3
 - 100두 미만 : ('02.6) 223천호 → ('02.9) 217 → ('02.12) 211
- 호당마리수는 전분기보다 0.1두 감소
 - ('02.3) 6.1두 → ('02.6) 6.5 → ('02.9) 6.7 → ('02.12) 6.6

□ 한·육우 사육동향 변동추이



□ 시·도별 한·육우 마리수

(단위: 두, %)

구분	'00.12	'01.12	'02				
			3	6	9	12	%
전국	1,590,020	1,405,849	1,371,246	1,448,058	1,460,732	1,410,228	100.0
대구	16,375	15,229	14,949	16,024	15,960	15,423	1.1
인천	15,026	11,581	11,846	12,362	12,682	12,883	0.9
광주	3,352	3,098	3,048	3,340	3,149	3,068	0.2
대전	4,346	3,399	3,064	3,098	2,962	2,808	0.2
울산	24,082	20,328	20,201	21,198	20,239	19,531	1.4
경기	148,844	123,732	120,256	122,332	130,252	130,732	9.3
강원	106,186	106,400	101,816	108,079	107,737	103,316	7.3
충북	111,020	101,109	96,921	102,345	106,187	100,877	7.2
충남	230,602	199,737	187,748	196,578	199,254	193,503	13.7
전북	150,732	129,248	128,241	132,144	133,960	129,413	9.2
전남	231,546	198,756	200,016	212,297	212,070	203,415	14.4
경북	302,414	295,878	287,917	310,595	310,037	299,236	21.2
경남	221,540	178,395	178,927	190,015	188,780	178,711	12.7
제주	21,732	16,983	14,531	15,756	15,661	15,784	1.1

□ 쇠고기 수입 검역 실적(2002년 12월말 기준)

(단위: 톤)

부위명	'01	'02.11	12월			
			상순	중순	하순	계
갈비	89,302	130,979	5,241	4,186	4,764	14,191
등심	10,080	15,145	194	181	287	662
목심	12,453	49,951	1,234	1,282	1,489	4,005
앞다리	8,694	12,411	529	593	522	1,644
양지	9,877	18,873	666	753	568	1,987
기타	35,551	38,338	1,349	1,107	1,457	3,913
계	165,957	265,697	9,213	8,102	9,087	26,402

한우안테나 - News

◎ “생우수입 적극 대처 불안해소”

이규석 전국한우협회장은 “지난해에는 구제역·돼지콜레라 등 법정 전염성 질병의 발생과 인공 수정료 지원사업이 시행 1년반 만에 폐지되는 등 한우산업 종합발전대책이 일관성 없이 추진된데다 생우 수입마저 재개돼 한우 사육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며 “한우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생우 수입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한우 의무자조금 실시 등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회장은 “올해는 무엇보다도 생우 수입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한우 사육농가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수입생우에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을 계속 전개하고, 생우 입식 이후 출하 때까지 철저한 유통 감시활동 등을 통해 수입업자들이 생우 수입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우협회가 수입 냉장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구제역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우의 거세사육을 통한 품질 고급화를 촉진시키고 광역 단위 브랜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회장은 “단지 ‘한우는 값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한우산업이 정책적 배려에서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에 추가 및 개선할 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한우 브랜드 지원 등 제때 알맞은 각종 한우사업 및 정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민신문 1월17일자】

◎ 올 하반기 한우 고급육 없어서 못판다

올 하반기 한우고기 1·2등급이 품귀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한우고기가 젓소 수소고기와 같은 취급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농협중앙회 원유석 한우사업단장은 거세장려금 지원 등으로 2000년 하반기부터 거세두수가 급증했지만 2001년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한 데다 2002년에는 가격 상승으로 대부분의 농가들이 거세를 기피한 결과 2003년 하반기 이후 한우 수소 거세우의 출하두수는 크게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박중수 충남대학교수는 지난 16·17일 대전 사포그레이크 호텔에서 개최된 한우협회 시·군 지부장 연찬회에서 “거세에 대한 한우농가들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지 않으면 한우산업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교수는 “소비가 없는 시장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거세에 참여해야 고급육 시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수축산신문 1월22일자】

◎ 한우 사육기반 다진다

농협은 한우 번식기반이 여전히 취약함에 따라 지난해 200억원에 이어 올해 축산운전자금 100억원과 조합상호지원자금 100억원 등 200억원을 지역 농·축협에 보조 및 융자지원, 부업 규모의 한우 사육농가들을 대상으로 위탁·예탁사업과 생축장사업 등 번식우사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우농가의 우량 송아지 생산 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사업과 한우 계통출하 활성화사업도 추진한다.

지원대상 조합은 축산운전자금의 경우 농협중앙회가 이달 말까지 각 농협지역본부를 통해 희망 축협을 대상으로 추천받은 뒤 사업추진계획서와 전년도 한우관련 사업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2월 상순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조합상호지원자금은 6~7월중에 지역 농·축협을 대상으로 축산운전자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조건은 축산운전자금의 경우 연리 4%에 1년 상환이고, 조합상호지원자금은 무이자 1년 상환 조건이다.

[농민신문 1월24일자]

◎ 수입생우에 사료공급 대리점 포착

수입 생우에 사료를 공급한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수입생우가 사육되고 있는 경기 화성의 태평농장에 사료를 공급한 업체는 사 등 3개업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미 충남 보령지역의 한우사육농가들은 수입생우에 사료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 ○○사료 대리점에 대해 대리점 폐쇄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료 전체에 대한 불매운동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료업체에서는 해당 대리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긴급히 사태수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생우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태평농장 앞에 초소를 설치하고 2명이 사료유입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료 유입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의 차적을 확인 역추적한 결과 수입 생우에 사료를 공급한 업체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우협회 관계자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수입생우에 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료불매운동 등 강력 조치할 것을 경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료를 공급한데 대해 크게 반발하며 사료불매운동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밝혔다. 또한 한우사육농가들도 지역별로 자체적인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신문 1월27일자]

◎ 육색저하방지용 보조사료 실용화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소장 김경남)는 지난 27일 육색저하방지용 보조사료를 개발하고 이를 영수화학과 기술이전 협약식을 가졌다.

축산연이 이번에 개발한 육색저하방지용 보조사료는 출하스트레스로 인해 육색이 진해지는 현상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출하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대부분의 물질이 반추위에서 파괴되는 단점을 보완해 반추위보호기법을 도입함으로써 한우에 직접 작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출하 하루전 1회와 출하당일 1회 등 2회에 걸쳐 경구투여하는 간단한 급여방식을 채택했다.

축산연은 그동안 남해화전한우와 평창축협에서 적용시험을 한 결과 혈중 스트레스호르몬(코티솔) 농도가 무급여 한우가 7.2였는데 반해 보조사료를 급여한 한우는 5.9로 낮게 나타났다.

[축산신문 1월29일자]

◎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제고에 농림부가 발벗고 나선다.

농림부는 축산물 중 유해물질 잔류 방지를 위한 대양축가 교육 홍보를 실시할 계획인가하면 시·도 및 관련단체의 축산물위생업무 담당자, 도축장영업자 및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도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제고 및 HACCP 추진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가질 계획이다.

농림부는 특히 식육중 유해성잔류물질 검사를 통한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항생물질 20종, 합성항균제 19종, 호르몬 2종, 농약 32종에 대해 잔류물질을 검사기로 했다.

잔류물질 검사 결과 출하전 생제잔류조사시 양성일 경우에는 축주에게 휴약기간 준수 후 출하토록 권장하고, 도축 후 지육잔류조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가축 출하농가에 대해 잔류방지 개선대책 지도 및 3개월간 규제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규제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치 초과 도체는 식용공급 불가, 규제검사 3개월 연장, 연속해 잔류허용기준 초과농가에 대해 1백만원이하 과태료 처분, 잔류위반농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알리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교육을 가질 계획이다.

[축산신문 2월3일자]

◎ “호주 생우 진입로 차단” 한우협회, 전북 진안지역 농가 입식 저지 나서

호주산 생우 847두가 설 연휴를 전후해 부산항과 인천항에 하역되자 전국 한우농가들이 입식농가진입로 차단 등 구체적인 입식저지 활동에 돌입했다. 전국한우려되고 한우사육의욕 저하 등 한우산업 붕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집중 부각, 입식 저지활동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부산과 인천검역원에 계류 중인 수입생우가 검역을 마치고 이달 중순 진안지역 입식농가로 이송될 때 진안IC부터 입식 저지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입생우가 사육될 예정농장이 밀집한 전북 진안지역 한우농가들은 한우협회전북지부를 중심으로 인근 무주, 진안, 장수지역 1000여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생우수입의 부당성을 알리는 안

내문을 발송, 수입생우 사육저지 활동에 돌입했다. 또한 한우협회는 전국의 한우농가들을 생우 입식농가 인근에 집결, 수입생우의 사육농가 입식 차단운동에 동참토록 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이규석 한우협회 회장은 “설 연휴를 틈타 들어온 호주산 수입생우의 국내 농가 입식 저지 결의는 확고하다”며 “지난해 벌인 수입 생우 입식 저지활동보다 더욱 조직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어민신문 2월4일자】

◎ 남해 화전한우, 잇따른 정부지원에 의욕 충만

남해 "화전한우" 농가들은 올해 들어 소를 키우는 것이 마냥 즐겁기만 하다. 정부에서 고급육 생산을 위해 수소 거세장려금을 주고 번식농가들은 3산 이상을 하면 다산장려금을 주고 있다. 여기에 남해군에서 인공수정료와 등록비를 지원해주고 등록우 경매에 참여하면 경매 수수료도 지급해주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부터는 우수축 포상금도 추가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 남해군(군수 하영재)에서는 남해 "화전한우" 사육농가들에 한우 고급육 생산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1월1일부터 거세우중 A1+등급과 B1+등급을 받은 소에는 두당 10만원(1백두 분 1천만원 예산)을, A1등급과 B1등급을 받은 소에는 5만원씩(2백두분 1천만원 예산)의 우수축 출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남해 화전한우회 임희열회장은 "남해군에서 '화전한우' 브랜드를 육성·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 등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어 회원농가들의 단합이 잘 되고 브랜드화 사업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있다며 "앞으로 '화전한우'가 최고의 한우 브랜드로 정착될 날도 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2월5일자】

◎ 미덥지 않은 한우정책

한우를 키우는 농가들은 적어도 가격에 대해서만은 큰 불만은 없는 듯하다. 송아지 괜찮은 것 한 마리에 250만원을 넘겨줘야 하고 큰 소도 400만원을 넘나들고 있으니 그럴만도 하다. 사육농가의 입장에서는 소를 키울 만한 충분한 가격요건은 되는데, 좀처럼 사육마리수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는 농가들의 가슴 속에 일말의 불안감이 크게 자리잡고 있음을 뜻한다.

언제 소값이 하락할지 모른다는 불안심리가 소를 내다판 농가들로 하여금 선뜻 송아지를 살 수 없게 하고 암소를 키우는 농가들마저 송아지 생산보다는 비육을 선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우의 고급화와 송아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지급하던 거세장려금을 올 7월1일부터 폐지하고 다산장려금도 내년부터 없애기로 했다고 한다. 인공수정료 지원도 지난해 폐지됐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결정이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한우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사육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호주산 생우 수입과 쇠고기 수출국들의 한국시장 공략이 본격화되고 있고 쇠고기 자급률이 30%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 한우산업의 실상이다. 이런 현실에서 1년 뒤, 2년 뒤를 내다보고 한우를 계속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는 농가들의 눈에 비친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미칠 심리적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의 가격구조에 농가들의 불만이 없다고 해서 정책당국이 긴장감을 늦추고 사육기반 확대 노력을 소홀히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축산 당국의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정책을 아쉽게 생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농민신문 2월5일자]

◎ “수입생우 사육저지 계속 펼칠것”

한우농가, 사료·약품 공급업체 제품 불매 추진

올해 수입된 호주산 생우에 대해서도 한우 사육농가들이 사육 저지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6일 축산회관에서 열린 한우협회 이사회에 참석한 농가들은 연이은 생우 수입으로 한우 사육농가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올 초에 들여온 생우에 대해서도 사육을 저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우 사육농가들은 15일 호주산 생우의 입식 장소로 알려진 전북 진안지역 농장 앞에서 사육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수입된 생우와 마찬가지로 사료·동물약품을 공급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우협회 전라북도지회는 ‘수입생우 저지 투쟁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전북 진안·무주·장수 지역내 한우농가 1,000여명에게 생우 수입의 부당성을 알리는 편지를 보냈으며, 생우 수입반대 등의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 30여개를 곳곳에 내걸었다.

한편 올해 처음 수입된 호주산 생우 847마리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부산지원에서 블루팅병 등 12개 전염병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고 있다. 검역과정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정식 통관돼 2월 12~16일 사이에 전북 진안의 씨 소유 농장에 입식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민신문 2월10일자]

◎ 수입생우 블루팅병 살처분 조치

1월하순 무진농장에서 수입한 호주산 생우 8백47두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1두가 블루팅병 항체 양성으로 판정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양성축은 살처분 조치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안수환)은 지난 11일 무진농장이 호주에서 수입한 생우 8백47두중 1두에서 블루팅병 항체양성으로 판정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살처분 조치했고 나머지 두수에 대해서도 40일이상 검역기간을 연장해 재검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입된 호주산 생우는 지난 1월 8일 호주 캄브라항을 출발해 지난 1월 26일과 29일 부산

항과 인천항을 통해 각각 국내에 수입됐으며 당초 8백47두중 3두가 검역중 폐사하고 8백47두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이번에 1두에서 블루팅병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블루팅병 항체 양성판정을 받은 소에 대해서는 살처분 조치했으며 나머지 8백43두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라 40일 이상 검역기간을 연장해 재검사한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검역원은 특히 호주정부에 블루팅병 양성축 검출사실을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강등등을 엄중항의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수입검역은 국제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철저히 이뤄지고 있어 이상이 없는 안전한 소만이 농가에 개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블루팅병은 돼지고기의 흡혈에 의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으로 소, 면양, 산양, 사슴 및 기타 야생반추동물에서 감염되는 제 1종 가축전염병으로 국제수역사무국 리스트 A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다.

블루팅병의 주요 증상은 발열과 구강점막 괴사 및 유사산을 주증상으로 하고 있으며 호주, 아프리카, 북미주, 아시아, 유럽등지에서 발생하고 국내에서는 발생이 없는 질병이다.

[축산신문 2월12일자]

◎ 수입조사료 유통체계 어떻게 개선되나.

농림부는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하는 조사료에 한해 실수요자별로 물량 배분기준을 설정하고, 수입추천 요청시 시장·군수의 확인서를 첨부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조사료 유통체계를 개선했다.

농림부가 내놓은 유통 개선 내용은 ▲농협중앙회의 축협조합 등에 대한 물량배분은 소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우와 젖소에 3:7의 비중치를 뒤 양질의 조사료 수요가 많은 젖소 농가에 배정량을 늘리고, 20두 미만 사육농가는 배정대상에서 제외했다.

▲농협중앙회로부터 물량을 배분 받은 조합 등의 수입업체에 대한 쿼터 판매행위 방지를 위해 농가의 수입조사료 신청서 외에 오는 7월 1일부터는 관할구역 시장·군수의 확인서를 추가로 첨부토록 하고, 시장·군수는 신청농가에의 공급여부를 수시로 점검토록 했다.

▲현행 추천한도량 연초 일괄배정을 상반기 45%, 하반기 55%로 분할 배정해 무계획적인 수입으로 인한 하반기 수급불균형을 해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협중앙회의 물량 배분기관이 지역축협, 낙협, 낙농육우협회, 한우협회 등으로 난립되어 농가별 배분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점을 감안, 오는 2004년부터 농협중앙회는 수입추천 업무만 대행토록 하고, 물량배분은 시·군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처럼 수입조사료 유통체계를 개선하게 된 것은 축협조합 등 실수요자에 대한 물량배분이 불합리하게 이뤄질 뿐만 아니라 물량을 배분 받은 조합 등에서는 농가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

지 않고, 수입업체에 쿼터를 판매하는 등의 여론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논·밭 등 농경지를 이용한 사료작물 재배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 국내 조사료 생산·이용을 확대토록 하고, 국내 조사료생산 확대에 상응한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적용물량을 연차적으로 감축시켜 나갈 계획임도 밝혔다.

[축산신문 2월19일자]

◎ 한우 명품화·가축 계열화 집중 지원

경기지역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축산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 등에서 모두 821억원이 투입돼 각종 사업이 펼쳐진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축산업 전략목표를 ▲깨끗한 축산 ▲고품질 축산물 ▲안정적인 소득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48개 세부사업에 국비 87억4,000만원, 도비 99억7,500만원, 시군비 78억4,100만원 등 모두 821억1,9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도가 마련한 세부사업을 보면 우선 축산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모두 249억7,600만원을 들여 가축계열화사업, 우량 어미돼지 갱신, 송아지 생산단지 조성, 별통개량사업 등 7개 사업이 펼쳐진다.

또 경기 한우 명품화를 위해 49억3,200만원으로 혈통등록과 인공수정, 유전자검사 등 한우 개량과 수송아지 거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양평 개군한우><안성마춤 한우> 수준의 고급 브랜드 단지 10개소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축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해 도는 소매유통과 육가공시설을 각각 4개소씩 신설하고 브랜드축산물 포장재 개선, 축산물종합처리장(LPC) 운영 지원, 기능성축산물 개발 육성 등 7개 사업에 213억8,9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가축방역 12개 사업에 117억1,400만원, 축산물 위생사업 7억4,600만원, 축산물 유통 홍보에도 19억2,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도는 이같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분기별로 시책 추진 자체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민신문 2월24일자]

◎ 추위와 갈증으로 긴긴밤 떨고 있는 가축을 생각해 보셨나요?

다일산업(대표 금재호)에서는 사계절 자동온수급수기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자동온수급수기는 따뜻한 50°C의 온수를 년중 공급 가능하여 육질이 좋아지고 장이 좋아져 활기 넘치는 가축으로 키울수 있다고 한다.

이 제품의 특징은 FRP소재를 사용 반영구적이며, 보온성이 뛰어나고 절연체로 감전사고를 방지할수 있다. 또한 센서에 의한 자동수위·온도 조절과 설정온도 이상시 전원차단으로 히터과열방지 효과가 있다.

[축산신문]